

# GMP 귀국 보고서

## 인적사항

성명	김일태	학번	
이메일	Kit7301@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기간	2021. 1 ~ 2021. 12	[귀국일:2021년 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교학처장 귀하

2022년 1월 일

신청인 : 김 일 태 \_\_\_\_\_ (인)

##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 1) 기후

미시간은 한국과 비슷한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미국의 다른 어떤 곳보다 뚜렷하다.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도 있고, 겨울에는 추운 날도 많이 있다. 1년동안 비는 한국보다 더 자주 내리는 경향이고,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 종종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생활하기에는 적합한 날씨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세먼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야외활동 하기에는 정말 좋다. 또한 이곳은 자연재해가 거의 없기로 미국내에서도 유명하다. 다른 곳들은 폭염, 가뭄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다른 곳은 폭설, 맹 추위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토네이도, 태풍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고난의 시기를 겪기도 한다. 반면 미시간이 이런 자연재해가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터전으로 이 곳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2) 지리적 위치

미시간은 미 5 대호에 둘러싸여 있고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는 미시간의 최대 공업도시이며, 미시간 중앙에 위치한 랜싱은 주도로써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다. 북쪽의 미시간(UP)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대표적인 관광구역으로 Pictured Rocks National Lakeshore, 타쿠아메논폭포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 여름이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또한 5 대호 주변의 해안가는 멋진 경치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오게 만든다. 이곳 미시간의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MSU 와 미시간대학이 있다. MSU 는 이스트랜싱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트랜싱의 대표적 랜드마크이며, 한국 유학생들도 약 300 명이상 상주하고 있다.

### 3) 생활여건

MSU 주변의 오키모스 지역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마트도 조성되어 있다. 아시안 마켓들도 있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생필품과 식재료 구입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가격은 한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 식당들도 꽤 운영되고 있어 한식 외식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식당 가격은 한국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편이다. 집(아파트) 렌트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이스트랜싱, 오키모스 지역의 1 bed 1 bath가 월 \$900-1,100정도이다. 4인가구의 경우는 오키모스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데 아이들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기 때문이다.

보통 집 구입은 테이크 오버를 통하여 임대 계약을 하는 경향이 많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집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MSU 교수님의 소개로 테이크 오버를 받아 이스트랜싱 지역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계약 체결까지 이메일로 서류 주고받는 등 약간의 시간만 소요하면 간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한가지 더 해야 할 절차는 보통 미국 아파트는 월세에 관리비 개념으로 수도, 난방, 쓰레기는 포함되나 전기는 본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고 따로 전기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다. 역시 코로나 팬더믹으로 전기회사 직접 방문 신청은 안되며, 전화로만 신청하여 전기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이 필요하며 SSN이 없으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내 경험에 의하면, 집 과 차는 사전에 계약하고 미국에 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 4) 자동차(등록, 운전면허)

자동차는 사전에 테이크 오버를 받아 큰 걱정없이 구입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모든 곳을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은 필수이다. 자동차 등록은 미시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고 시간에 맞추어 혼자서만 방문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어렵지 않고 서류제출과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고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받으면 된다. 번호판은 본인이 직접 차에 달아서 운행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발급은 자동차 등록보다는 더 복잡한 구조이다. 미시간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따로 안 보아도 된다. J1비자 학생의 경우 미시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우선 학교 추천서를 받아 미 사회보장행정기관(SSA)에 방문하여 사회보장번호(SSN)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SSA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만 예약하고 방문이 가능하다. 날짜에 맞추어 방문하여 서류와 양식을 제출하면 보통 2주안에 우편으로 SSN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에 SSN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전화 예약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 고생을 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도 전화 예약이 무슨 이유인지 잘 되지 않아 오랜 시간후에 SSN을 받을 수 있었다. SSN을 발급받으면 다시 서류를 갖추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시력검사와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주고 약2주안에 미시간 운전면허증을 역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과정이 아마도 제일 오래 걸린 것 같고 신경도 많이 쓰인 것 같다.

## 5) 백신 접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백신 접종은 미국에서도 1년내내 이루어졌다. 미국 내 백신회사들이 다수 존재하여 한국보다는 백신 접종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보통 병원, 약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에 예약하면 보통 1~2주 사이에 접종을 할 수 있다. 미국 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험가입 유무에 관계 없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가지고 당일 예약한 해당 지역에 가서 접종하면 백신 카드를 교부해 준다. 나의 경우는 4월에 1차를 접종했고 4주후인 5월에 2차, 그리고 6개월 후 11월에 3차 부스터 샷까지 접종하고 귀국하였다. 미국은 정부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은 한국처럼 높지는 않았는데 자유의 나라로 각 개인 의사에 따라 주마다 현저한 차이가 났다.

##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MSU 비학위 과정인 VIPP 과정은 대학원 수준의 강의 및 영어 강좌로 구성된다. 그리고 원래는 한국 KDI 과정 학생 외에도 외국인 수강생들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 유독 다른 나라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인 수업난이도는 다소 어려웠으나 적응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VIPP 프로그램은 봄 학기와 가을학기로 구성되며 학기당 4~5과목을 수강했으며, 과목의 주제는 미국 정부, 미국 문화, 미래 도시, 전략적 사고 등 다양하고 유익한 과목들이었다. 영어 과목의 경우 Conversation 및 Strategic Communication and Debates를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루었고, 과제나 발표는 온라인 수업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올해는 수강 인원수가 적어 교수와의 대화할 시간이 많았으며, 자유토론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에 영어에 대해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많이 상승되었고, 어디서든 영어로 말하는 것은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다.

올해는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었고, VIPP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등이 취소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런 과정속에서 담당 교수님의 노력으로 하반기에는 체험 및 현장견학 등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하여 역시 학교를 많이 못 다닌 점이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을 대처하는 미국 정부와 학교, 국민, 다양한 이슈들을 경험하고 나 또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한 것은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 3.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출국전에 사실 설레임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미국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었다. 미시간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약 2주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였다. 하지만 그 후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차차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미시간의 좋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었으며, 강의 내용과 재미도 너무 어렵지 않고 적절하였고 MAU 학교 체험을 통하여 그 동안 체험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시야를 넓히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특히, 미국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 대학 미식축구 경기 관람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또한 주 의회를 방문하여 이곳의 의회 시스템을 알 수 있었으며 미 공무원과의 미팅을 통하여 이 곳의 행정시스템, 공무원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의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었던 점이다. 이로 인해 미국 현지인들과의 만남이 생각보다 줄어들었고 영어를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팬더믹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더 재미있고 즐거운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시기이더라도 본인이 잘 준비해서 현지 생활을 한다면 보다 충실하고 자신감 있는 미국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